

第58回

서울特別市 鍾路區議會 本會議 會議錄

開會式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6年 3月 21日(木) 午前 10時 59分 開式

第58回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臨時會) 開會式順

1. 開 式
1. 國旗에 대한 敬禮
1. 愛國歌 齊唱
1. 殉國先烈 및 戰歿護國勇士에 대한 默念
1. 開 會 辭
1. 閉 式

(司會 議事係長 吳益煥)

(10時 59分 開式)

○議事係長 吳益煥 지금부터 第58回 鍾路區議會臨時會 開會式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國民儀禮가 있겠습니다. 壇上의 國기를 향하여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一同 起立)

(國旗에 대한 敬禮)

다음은 愛國歌 齊唱이 있겠습니다. 錄音된 전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愛國歌 齊唱)

이어서 殉國先烈 및 戰歿護國勇士에 대한 默念이 있겠습니다.

(一同 默念)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一同 着席)

다음은 議長님의 開會辭가 있겠습니다.

○議長 金憲中 尊敬하는 同僚議員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關係公務員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이제 따뜻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나뭇가지에도 새순이 돌아나고 있는 것을 보니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종로구 전체 구민을 위한 행정과 구민을 위한 의회 지원 사항이 요망되고 있고 산적같이 쌓여 있는 종로구

발전상을 돌이켜볼 때 의원님들 지역에서 한시도 게으름 없이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있고 또구청 관계관계서도 모두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저는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개회사에 갈음하여 어제 일어난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종로구에서 가장 크고 또 봉사적이고 유지들이 모인 공영회의 초청을 받고 참석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현안 말씀과 여러 가지 질문도 받고 경위를 받은 가운데서 우리 종로는 千相旭議員께서 제안한 종로라는 두 글자를 바꾸어야 되고 종로 문화특구로 요청을 하든지 아니면 청와대가 있는 종로특구로 지정을 하든지 기타 따라서 우리 종로구가 문화원, 문화관 하나 없는 종로에서 관광종로로 요청을 해야 된다 이런 등등을 이미 회원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종로 살림에서 특히 지금 대두되고 있는 이 건물 자체가 서울시 건물이고 땅은 종로 땅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기현상이 일어났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그로 인한 왈가왈부하는 문제도 그 가운데에서 얘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 의회는 이런 문제를 여론에 입각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등등의 얘기가 있었고 아울러 의

회와 종로는 앞바퀴와 뒷바퀴같은 운명으로서 어느 구보다도 화합하고 의원들이 열심히 일해준다는 데 대해서 박수를 받았습니다. 더욱이 채찍질해준다는 것으로 이렇게 인정해서 몸들 바를 몰랐다는 사실을 보고를 드리면서 우리 2대 의회가 개원되어 금년에 벌써 3번째 맞는 개회가 되겠습니다. 이곳 의사당 뿐만 아니라 구정의 현장에서 우리가 발전하는 의정활동을 구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구정 업무에 미치게 될 영향 또한 매우 크다고 거듭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 구의회의 역할의 중요성에 비추어 우리의 의정활동도 구민 모두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생산적이고 성숙된 자세에서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성실한 노력이 밑받침이 될 때 우리 구민의 복지가 증진되고 구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조성될 뿐 아니라 더욱 차원높은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 중에도 구의원 의정활동의 상징적인 분야로써 구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제재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당부드리며 아무쪼록 이번 회기가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훌륭한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청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議事係長 吳益煥 이것으로 제5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時 08分 閉式)